

의원 등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초청 방문

2017년 10월



순천시의회

||| 목 차 |||

I. 출장 개요	1
II. 방문국 현황	3
III. 주요 출장 내용	6
IV. 기타사항 및 제안내용	16

- 러시아 연해주 지역 교류 협력을 위한 초청방문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대 상 국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아르츨, 우수리스크)
- 목 적
 - 아르츨 시와의 우호협력 확대 및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 의료관광객 유치, 양국 언어학과 개설 방안 마련
 -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 기 간 : 2017. 9. 18.(월) ~ 9. 22.(일) / 4박 5일
- 출장자 인적사항

연번	소속	직위	성별	성명	비고
계				9명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	신민호	
2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	유혜숙	
3	”	위원	남	허유인	
4	”	위원	여	김재임	
5	”	위원	남	유영갑	
6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남	강형구	
7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남	이옥기	
8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남	김좌선	
9	”	주무관	남	박광현	

○ 연수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 일정	비 고
1일 차 9. 18. (월)	순천 (김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김해국제공항 19:40 출발(아시아나) ○ 블라디보스톡 도착 22:15(현지시각)	▪ 비행 소요시간 (약 2시간)
2일 차 9. 19. (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아르츰)	○ 아르츰 이동 ○ 아르츰 시청 방문 - 시장, 부시장, 의장 간담회 ○ 아르츰 제1시립병원 방문 ○ 아르츰 예술학교, 기업지원센터 방문 ○ 블라디보스톡 이동	▪ 이동 소요시간 (약 1시간)
3일 차 9. 20. (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역사문화탐방 - 잠수함박물관, 개선문, 태합사, 독수리 전망대, 혁명광장 등	▪ 이동 소요시간 (약 1시간)
4일 차 9. 21. (목)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우스리스크)	○ 우수리스크(기차) 이동 ○ 역사탐방 - 최재형 생가, 이상설 유허비, 전러한족 중앙총회 결성장소, 고려인 문화센터, 발해성터 등 ○ 블라디보스톡 이동	▪ 이동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5일 차 9. 22 (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한국 (순천)	○ 블라디보스톡 투어 - 해양공원, 루스끼 섬(극동 연방 대학), 신한촌, 아르바트거리, 해양공원 등 ○ 한국 이동(17시40분)	▪ 비행 소요시간 (약 2시간)

II 방문국 현황

○ 러시아



- 수도 : 모스크바
- 면적 : 1,709만km²(세계 1위) ※ 우리나라의 77.421배
- 인구 : 14,257만명(세계9위)
- 언어 : 러시아어
- 통화 : 러시아 루블 (1RUB = 19.68원).
- 정체 : 연방공화제, 다당제, 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총리(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종교 : 구소련 정권하에서 종교 억압정책되었으나,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활발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종교집단은 러시아 정교이며,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분파들이 활동하고 있다.
- 인종 : 러시아인(슬라브계 82%),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3%) 외 기타 소수민족(키르키스인, 체첸인, 한인(고려인), 불가리아인, 헝가리인 등)
- 역사 : 9세기 후반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 최초로 공국을 세웠고 이후 교역 요충지나 넓은 농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공국이 세워졌으며 서로 경쟁하듯 발전해 나가 공국들 중 패권을 잡은 통치자는 '대공'이 되었다. 14세기 몽골의 지배를 받게되고, 이후 '차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이반'의 등장으로 강력한 전제주의적 왕권을 내세워 몽골의 잔재를 청산해 나가고 동진을 시작했으나 이반 사후 권력투쟁이 벌어졌으며 마지막 승자가 로마노프 가문으로 러시아의 유럽화를 이루어낸 '표트르 대제'가 출현하게 된다. 바다를 이용한 교역의 확대를 위해 발트해와 흑해로 진출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수도를 옮기는 등 러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9세기 후반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으로 공업화를 이루었으나 적극적인 극동 진출 정책으로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혁명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국회창설 등 민주적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 제1차세계대전 등으로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져 개혁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은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2세는 1917년 퇴위를 선언하지만 소비에트 혁명군에 의해 1918년 처형되면서 제정 러시아시대의 막을 내리게 된다.

○ 연해주 일대



- 러시아 행정구역 상 프리모르스키 지구라고 하며, 면적 약 16만5,900km²로 남한면적의 약1.7배의 면적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러시아 극동 지방 중 최남단의 가장 작은 지구이다. 주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인구 약60만명으로 러시아의 아시아권 주요 항구이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태평양 연안 종착지이다.
- 고대 한민족, 말갈족, 여진족 등이 지배하였다가 중국 청나라의 땅이었다가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해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건설하여 극동지역의 군사·무역의 거점으로 삼는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동방을 지배하라'는 의미이다.
- 일제 침략 이후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해방을 맞을때까지 독립지사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Ⅲ 주요 출장 내용

1 아르츨 시장단, 의장단 면담



공항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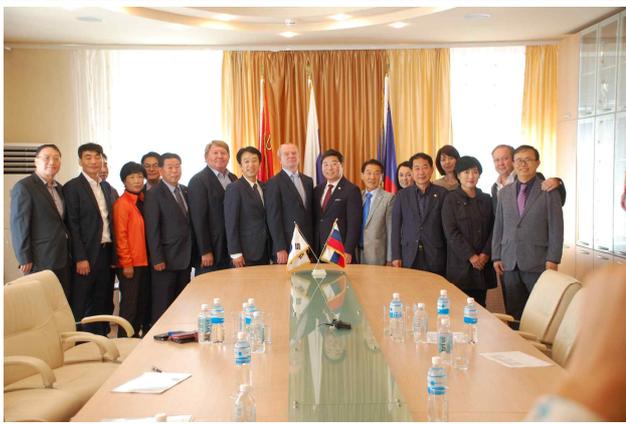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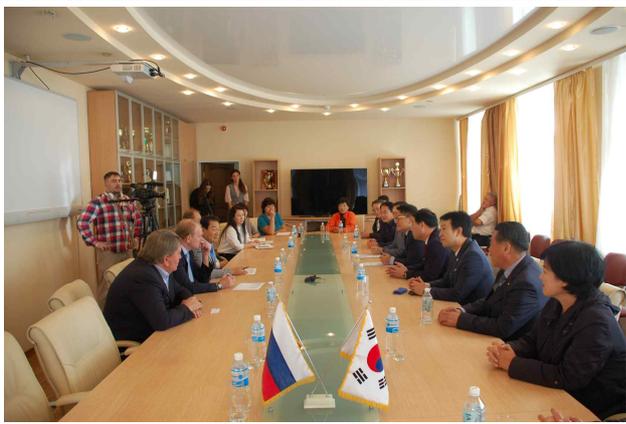
시장단
면담

<<부시장 일행 환영>>

- 22시 15분 경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 등을 마치고 약 23시 경 전광근 아르츨시 부시장이 직접 관계인사들과 함께 마중
- 전광근 부시장(국제협력부문)은 고려인 2세로서 연해주 다민족한국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아르츨시 국제협력국장, 정무직 국제관계 특보를 거쳐 아르츨시 국제협력부문 부시장으로 국제협력분야를 이끌고 있음

<<아르츨 시장단 면담>>

- 아르츨 시장(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이 우리 방문단과 직접 면담
- 민간 의료단체의 의료봉사활동으로 맺어진 인연이 지난 3월 아르츨 시 관계자(전광근 부시장 일행)의 순천방문을 시작으로 6월 아르츨 시장의 순천방문에 따른 교류협약 체결에 이어 순천시 의회 의원을 초청하게 되어 세 번째의 공식 만남을 갖게 됨.
- 아르츨시는 국제협력부문 부시장(전광근)의 다양한 대외 활동으로 순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도 교류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하고 있고, 중국, 일본 등과도 교류 중
- 아르츨 시는 인구 약10만의 작은 도시이지만 블라디보스톡 공항이 위치해 있으며, 블라디보스톡과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 미래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는 대규모 카지노시설 유치 등 관광분야에 특화된 기업 등의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아르츨 시장은 우리시와 현재 의료, 교육, 농업과 관광분야 교류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과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 등 민간·경제활동 분야에서 교류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
- 특히 연해주 지역에 고려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만큼 한국어 강좌 개설 등에 관심을 갖고 있음



순천시 의회 - 아르침시 시장단 면담



기념품 전달(시장)



만찬



방송사 인터뷰(위) 및 지역 일간신문(우)

2 ГОРОДСКИЕ НОВОСТИ

Самая читаемая

ДРУЖБА НАРОДОВ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9 сентября глава Артем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андр Аведев встретился с делегацией депутатов и врачей 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 Сунчхон.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прибыли в Артем, чтобы обсудить ранее заключенный договор о совмест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ультуры, экономики и медицины, подписанный год назад.

«Это уже не первая наша встреча», -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 И на этот раз я рад, что в делегации есть депутаты. Это важно, так как на уровне депутатов мы можем решить мног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а после постепенно перейти к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экономически. Это будет полезно нашим городам и нашим жителям.

Глава поблагодарил корейских делегатов за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оказанное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артемов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Сунчхоне, предложил еще лучш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Артемом 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будущие визиты будут обоюдными и полезными.

«У нас давние отношения и налажен хороший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ии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артемовской Думы Анатолий Бадель. Наши артисты и спортсмены едут к вам, ваши приезжают к нам. Артемовцы 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вашей стране, любоваться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но и получать соврем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Развитие ваш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том числе и в медицине, стало толчком для оснащения наших больниц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обучения персонала как в России,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Мы всегда рады видеть своих друзей у нас в гостях. Важно, что подобные визиты приобретают постоянный характер», - 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1 Александр Кондрашкин. - Наши врачи выступили на медицин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вашем город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медицин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получили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в ваших клиниках. Надеемся, что подобные визиты будут постоянными и полезными для всех.

Город Сунчхон расположен в юг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Территори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выходит к Корейскому проливу. Город является свобод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ой. В нем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300 000 человек.

Сун Мин Хо, директор по управлению делами в Думе Сунчх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и выразил согласие с мнением хозяев встречи о дальнейш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кратко рассказали о жизни своего города и е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устройстве.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ошел председатель медиц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Сунчхона Сун Чон Ок, посетил городскую больницу №1. Он высказал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по поводу состояния больницы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казахских врачей. В рамках неформальной беседы медики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ости пригласили артемовских врачей в Корею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Андрей КИШ, фото автора.

ПОЗДРАВЛЯЕМ!

СОТРУДНИКИ АРТЕМОВСКОГО РЕМОНТНО-МОНТАЖ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2

아르츨 예술학교 [연해주 제2예술학교]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전문학교
- 무용을 중심으로 한 예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저학년은 인원이 많은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든다. 또한 저학년에서는 남녀의 성비가 비슷한 반면, 고학년일수록 남성의 비율은 줄어들며, 이는 발레 등 예술분야 진출을 우대하면서도 남성의 예술분야 진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 일반 교과목 과정보다 역사와 수학, 문학과 무용 등을 접목하여 예술분야 진학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교과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빵과 소금
환영식

“빵과 소금”의 환영식은 동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환대와 우정의 뜻을 갖는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전통의상을 입은 여인이 소금을 위에 올린 빵을 가지고 오는데, 방문객은 그 빵을 한 점 떼어 소금에 찍어먹으며 답례하도록 된다. 1970년대 우주정거장에서 미국과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도킹했을 때도 크래커와 소금으로 대접했으며, 1990년대 북한의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빵과 소금을 준비해 대접했다고 한다.



저학년
교실

교실은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방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오수시간에 편하게 쉬기 할 수 있도록 침대 등이 비치되어 있음.

책상은 좌석식과 입석식으로 구분하여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저하된 학생은 스스로 입석식 책상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계속하며, 책상이동에 대해서 교사는 강제하지 않는다고 함.

또한, 교실 천장에 화살표를 부착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목운동과 안구운동을 하도록 유도



한류문화와 더불어 최근 한-러 정상회담이 이 지역에서 개최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고려인이 아닌 백인 러시아인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음



학생들의 실기 수업 참관



학교 자체에서 의상실을 갖추고
교사가 직접 공연 등에 사용할 의상과 소품 등을
제작하여 사용

3

아르츨 제1시립병원

- 러시아의 의료제도는 과거 소련의 중앙집권적으로 정부가 모든 사회 보장제도를 책임지는 조세방식의 의료제도에서 1991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제도 또한 시장 지향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
-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전액 부담함. 고용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다시 지방의 건강 보험금과 연방건강보험금으로 구분되어 적립되고, 비경제활동인구(노인, 아동, 실업자 등)의 보험료는 지방정부가 부담.
- 고도의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의사가 많이 있으나 현대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이는 소련 붕괴 후 장기간 지속된 경제난으로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생산체계가 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화부족으로 수입도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
- 순천시-아르츨시 간 우호교류는 민간의료단체의 의료봉사활동이 그 시발점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교차 세미나, 의료봉사단 파견 등 민간의료 교류활동 확대를 통해 양 도시간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아르츨 제1시립병원
방문



아르좁
제1시립병원
수술방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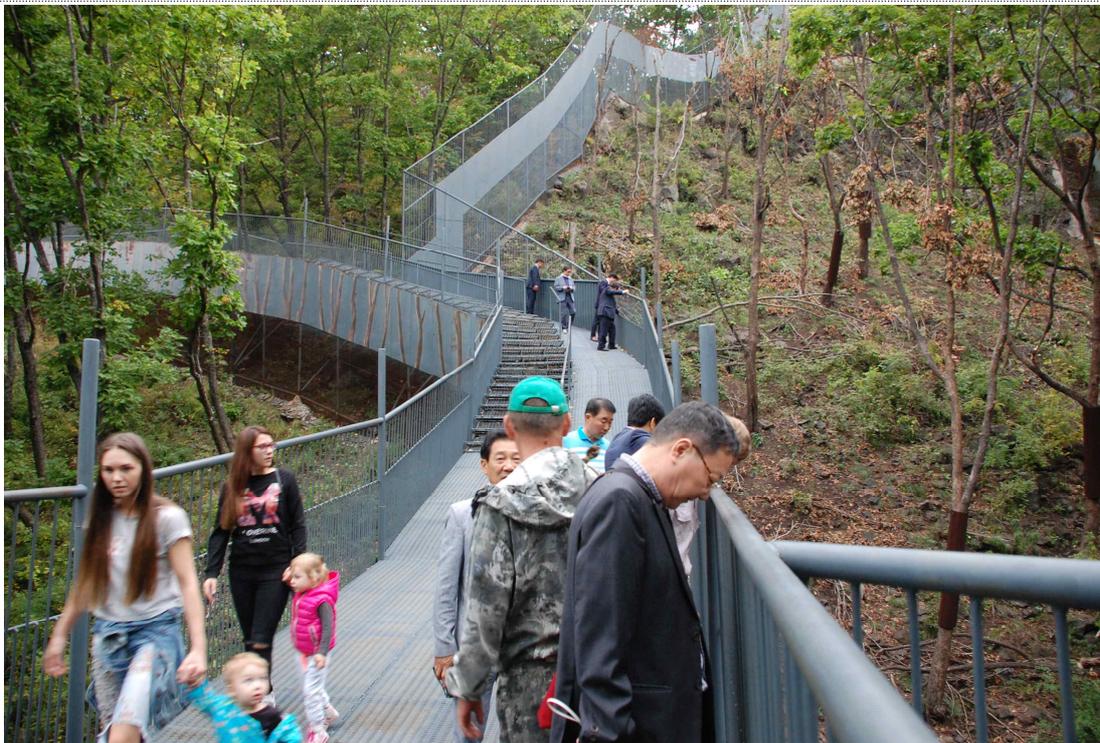
아르좁
제1시립병원
첨단 의료기기

종합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산하며, 환자의 대부분이 노년층
한국의 경우 감기같은 작은 질병에도 병원을 찾으나 러시아는 증상이 아니면 병원을 찾지 않음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의 경우 극소수로 운영되고 있음

4

연해주 사파리 공원

- 자연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여러 동물을 볼 수 있는 한국적인 사파리와는 달리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 숲의 일정 구역을 울타리로 나눠 사파리로 지정하여 운영
- 한국적인 사파리와 달리 화려하고 재미와 체험이 있는 사파리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동물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
- 호랑이와 개의 우정, 염소를 친구로 삼은 호랑이 등의 일화가 유명해져서 관람객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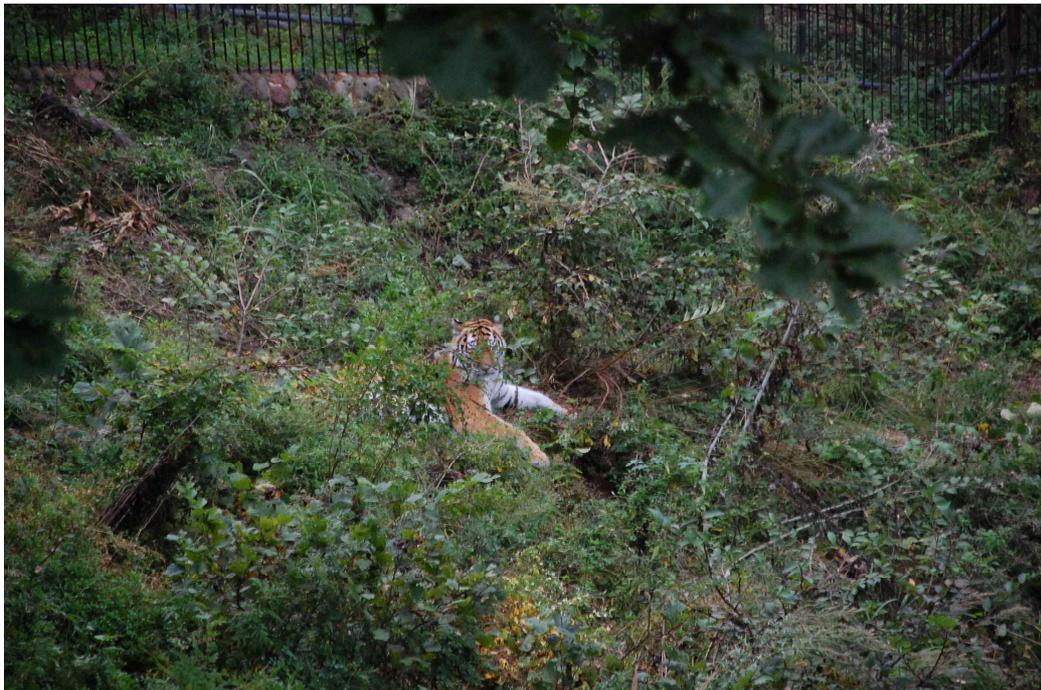
연해주
사파리
공원

연해주의 상징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 만주 호랑이 등으로 불리며 호랑이 중 몸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반도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절 무차별 포획으로 1920년대 이후 살아있는 호랑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연해주 지역에 300여 마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엄소를 친구로
삼은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

먹이로 준 엄소를 친구로 삼은 호랑이. 새끼때부터 함께 생활한 개와 호랑이의 우정.

일상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일정수의 관광객이 준비되면 가이드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며, 러시아 특유의 공급자 중심적 운영으로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객의 불만도 크지 않음

IV

기타사항 및 제안내용

<<블라디보스토크 탐방>>



<태함사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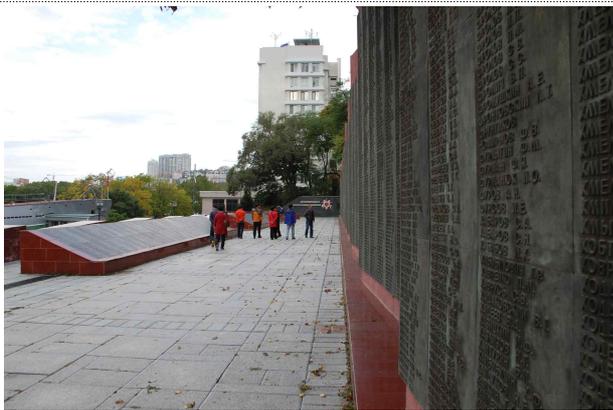
<항구 폐철도>



<잠수함 박물관 외부>



<잠수함 박물관 내부>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영원의 불꽃>

태함사 일대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모여 있다. 독일군 전함 12척을 침몰시킨 C-56 잠수함을 개조해 전시한 잠수함 박물관, 제2차 세계 대전 참전기념비와 영원의 불꽃, 러시아 정교회 사원, 니콜라이2세 방문을 기념한 개선문, 공원과 많은 인물들의 동상, 다양한 상징물로 관광객의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선문: 니콜라이2세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기념한 개선문. 황태자 시절 러시아 전역을 방문하였고, 여러 중요 도시에 개선문을 건설하였으나 사회주의 혁명 이후 파괴됨. 2003년 니콜라이2세 135주년을 기념하여 복원. 4면에서 모두 동일한 모습

제2차 세계대전 참전기념비, 영원의 불꽃: 제2차 세계대전 참전기념비에 참전 병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김·이·박 등 우리나라 성을 가진 이름도 보인다고 함. 또 기념비 아래쪽으로 참전희생자를 기리며 1975년부터 하루도 꺼지지 않는 영원의 불꽃이 타오름

잠수함박물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군함 12척을 침몰시킨 C-56 잠수함을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활용.

부동항을 원했던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탐냈던 만큼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였고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았다.

특히 항구 주변에 극장, 상가, 공원 등이 있어서 관광지에서 상인과 관광객만 보고 가는 것과 달리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물론 아직 관광산업에 대한 개발 초기단계로 관광객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사항으로 이용되던 시절 군사물자를 실어 나르던 철도를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여 또 다른 포토존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몇몇 도시들이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폐철도 부지 변형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도 좋지만 원형보존을 통해 시민들에게 통제되었던 공간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개방·해방감을 주는 것으로도 의미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수리 전망대>



<독수리 전망대>



<푸니쿨라 외부>



<푸니쿨라 내부>

독수리 전망대: 블라디보스토크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약 200m높이의 산. 항구가 위치한 금각만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2012년 APEC회담을 대비해서 건설한 금각교와 어울려 절경을 이룸.
 푸니쿨라(funicular): 케이블카의 일종인 강삭철도. 레일 위에 설치된 차량을 밧줄을 통해 견인하는 방식으로 급경사지 상하부에 차량 1대씩이 서로 교차운행. 이용요금은 약250원(12루블).

독수리 전망대는 빼어난 경치로 관광객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웨딩 촬영지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우리시의 죽도봉 공원도 도심권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나 시야가 좋지 않아 시민들이 찾지 않고 있어 아쉽다. 시민이 찾지 않는 곳은 관광객도 찾지 않는다.

독수리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 이용한 푸니쿨라.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해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한다. 우리시 스카이큐브도 순천만까지 연장, 도심까지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다. 스카이큐브가 관광시설이 아닌 교통시설이 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이 이



<혁명광장>



<아르바트 거리>



<해양공원>

혁명광장: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싸운 병사들을 기리기 위한 광장. 매주 금요일에는 재래시장 개설됨. 동상은 특정인물이 아닌 혁명을 위해 싸운 병사 일반을 상징.

아르바트 거리, 해양공원: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의 이름을 딴 변화가로 유럽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거리. 해양공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곳에서의 음주는 금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유럽의 문화 중 가장 부러운 부분 중 하나는 광장문화이다. 혁명광장 주변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최대 변화가라고 한다. 광장의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주변을 변화가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한다. 폐쇄적인 생활과 사고방식으로 광장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광장이라는 이름의 공원을 만든다. 광장은 해방과 자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규모에 맞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광장을 조성해봄직도 하다.(시청 앞 광장 등)

<<시베리아 횡단열차>>



<블라디보스토크 역>



<9,288km 기념비>



<세단카 역, 일렉트리치카(기차) 외부>



<기차 내부>

시베리아 횡단열차: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식민지, 군사적 목적으로 1890년대 건설된 철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8km에 60여개의 역을 6박7일간 이동하며 전 객실이 침대칸

역사탐방을 위해 우수리스크로 이동을 위해 '일렉트리치카'라는 기차를 탑승.(시베리아 횡단열차와는 전혀 다르며, 전철이나 통근열차와 비슷)

철로의 너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어 보이나, 열차내부는 더 넓어서 3인석 의자가 양쪽에 배치된다. 기차가 아무르만(灣)과 가깝게 붙어서 달려 창밖으로 시원한 바다경치를 볼 수 있다. 한국기차의 좁은 좌석과 방음벽·터널로 막힌 시야 때문에 느껴지는 답답함과는

<<역사 탐방>>



<이상설 유허비>



<최재형 생가>



<고려인 문화센터>



<신한촌>

이상설: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헤이그 특사)로 파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권업회를 조직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 이후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워 정통령에 선임되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해체당하고 병사함. 유언에 따라 유해를 화장하여 수이푼강에 뿌려진다. 유허비는 이상설 선생을 기리며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2001년 건립.

최재형: 어린시절 아버지를 따라 연해주로 이주.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였으나 러시아 상선 선장에 의해 구조되어 그와 함께 세계를 경험하고 러시아인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씀. 군수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한인들을 고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신망이 높았음. 재산의 대부분을 항일투쟁을 위한 군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대동공보를 발행하여 항일의식을 고취시킴.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지원하고 그의 부인과 아이들을 돌봄. 이후 일본의 압박으로 러시아와 거래가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러시아 혁명 시기에

혼란한 정세를 틈타, 연해주 지역의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략해 온 일본군에 의해 1920년 체포되어 살해당함.

신한촌: 1870년대부터 농토와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로 집단 이주한 한인들이 구개척리를 건설하였고, 이후 국권침탈로 더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면서 독립운동기지로 주목받음. 그러나 전염병을 이유로 러시아에 의해 개척리가 폐쇄되고 다른곳으로 이주하도록 명령. 새로운 한인촌이 형성되고 신한촌으로 불리우며 한인사회의 새로운 중심지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새로운 기지가 건설됨. 권업회, 성명회, 대한광복군정부 등 많은 독립단체가 결성되었고, 일본의 감시 또한 철저해져 신한촌 외곽에 영사관을 두고 신한촌의 동태를 감시했다고 함.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동맹관계로 발전하면서 활동이 위축되었고 4월 참변으로 많은 지사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였고 일본군 헌병대를 주둔시켜 항일독립운동 기지로서 역할이 퇴색. 1937년에는 스탈린 정권에 의해 일본간첩을 막는다는 구실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면서 신한촌은 사실상 폐쇄됨. 약18만명의 고려인이 강제이주 과정에서 2만5천여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사망하는 비극 발생. 1993년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고려인 명예회복 법안이 채택되면서 연해주 지역의 5만여 고려인 중 3만여명이 재이주해 정착한 사람이라고 함.

고려인 문화센터: 2004년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에 건립. 연해주 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의 역사, 항일운동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소. 극동연방대학교에 있던 안중근 의사 기념비가 철거되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2015년에 이곳으로 옮겨 설치.

한국사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인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사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적 사상과 단체들이 조금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듯 했다. 시험을 위한 역사공부가 아닌 선조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의미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우리시에도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 및 진료 유적지가 존재한다. 우리의 역사이자 그들의 역사이다. 잘 보존·관리한다면 우리시도 역사탐방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기타사항>>



<울 브리너 동상>



<혁명광장 병사 동상>



<레닌 동상>



<쿠제네초프 제독 동상>



<솔제니친 동상>



<키릴형제 동상>



<푸시킨 동상>



<성직자 동상>

사회주의 제도권의 특성인지 거리,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동상을 볼 수 있다. 우리시의 경우 특별한 동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시에서 배출한 역사적 인물이 없는 것도 이유일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종교적, 정치적으로 반대사상을 가진 인물을 배척하는 정도가 심한 것 때문이기도 하다. 불상이나 성모상, 심지어는 단군상까지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나와 다른 사상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할 줄 아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동상을 제작할 때 역사적,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진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승룡’은 순천 출신이면서 역사적 평가 또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손기정을 부러워했으나 1등을 해서 부러운 것이 아니고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러웠다는 남승룡의 말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동상을 제작한다면 남승룡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을